구례 이어 곡성도 1조원대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장

한국동서발전과 업무협약 연내 대상지 최종 선정 봉화·합천 등 전국 5파전

구례군에 이어 곡성군도 신규 양수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5파전' 대진 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곡성군은 지난 28일 한국동서발전㈜과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바였다.

협약식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 의회 의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 석했다.

곡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죽곡면 고치리에 500 MW 규모 양수발전소를 함께 유치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뒤 곡성군은 한국동서발전㈜에 양수발 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했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국비 1조원 규모 사업으로, 발전소를 세우면 지역발전기금과 세수 확보 직접 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곡성군 측은 예상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 하고 있다.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하는 자치단체는 모두 5곳으로, 전남에서는 구례(문척면)와 곡성



곡성군(군수 이상철·오른쪽 네번째)과 곡성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8일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이 뛰어들었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100㎞ (2.1GW) 규모 양수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달께 양수발전소 신청 공모를 내고 11월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자치단체는 500 ㎢~700㎞ 규모 발전소 유치 계획을 세웠는데, 이가운데 2~3곳이 최종 대상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부발전은 구례·경북 봉화, 한국수력원자

력은 경북 영양·경남 합천, 한국동서발전은 곡성과 양수발전소 신규 건립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김균형 곡성군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장은 "주 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호응하고 있다"며 "대 상지 선정 심사 때 곡성군은 좋은 입지 조건과 주 민 수용성을 갖춰 점수를 높게 받을 것으로 생각한 다"고 마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앞서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수몰될 지역 가구는 5가구로 곡성군은 파악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25일 죽곡면 이장단과 회의를 열고, 이달 6일에는 고치마을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건립 방안을 설명했다. 건설 기간은 준비 4년을 포함해 10년 안팎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건립 대상지 주민들과 산청과 예천 등 양수발 전소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 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했다. 이후 관계 부서장 사업 설명회를 거쳐 양수 발전사업 유치 도전을 확정하게 됐다.

곡성군은 양수발전사업과 관광을 연계해 섬진 강권 체류형 여행 상품화를 꾀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하부 저수지에 물을 내려보내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상부 저수지에 물을 올려놓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질 오염이나 소음 등이적고, 발전량을 조절하기 쉬워 재생 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꼽힌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신규 양수발전 사업은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방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 군의회, 한국동서발전㈜ 이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협조 관계를 구축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 돌산도 봉수 국가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사적 지정 예고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여수 돌산도 봉수(烽燧)가 국가문화재로 지정

여수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25일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돌산읍 둔전리 산 248 일원)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현 남산)을 잇는 전남·전북·충남·경기·인천 지역 내 16 개 봉수 유적을 '제5로 직봉'으로 부르고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수 돌산도 봉수 사적 지정은 '제5로 직봉'구 간 가운데 출발지로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30일간 지정 예고 를 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를 열 예정이다.

지정 고시는 오는 10월에 할 방침이다.

여수 돌산도 봉수는 여수 충민사와 여수 석보, 여수 선소유적에 이어 네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사 적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봉수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은 올해 3월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을 잇는 '제2로 직봉' 구간에 이어 두 번째다.

봉수는 일정한 거리마다 봉수대를 둬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횃불로 중앙에 전하던 전통적인 군사통신수단이다. 직봉은 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주요 봉화대를 뜻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1605개 조명 밝힌 광양 배알도 야경 명소로 뜬다

순천시 참가자 30명 모집 내달 16일 조례호수공원서

유학생 퀴즈 딩동댕

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청년 대상 퀴즈대회인 '유(학생)퀴즈 딩동댕'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6일 조례호수공 원에서 진행할 '2023년 순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된다.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 청년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된다.

참가 신청 방법은 순천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 (su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 모두에게는 기념품을 제 공할 예정이다.

대회 1등에게는 30만원 상당, 2등 20만 원 상당, 3등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준다. 대회는 한국어, 한국사, 한국예절, 문 화, 순천 청년 등 한국과 청년에 대한 전 반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적어내는 방식 으로 진행한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순천시에 거주 중 인 외국인은 2719명이다. 이 가운데 18 세~45세 외국인은 2048명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야간경관조명사업 완료 점등식 망덕포구 전어축제 5만명 몰려

광양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다리에 1605개 조명을 불을 밝히며 이 일대가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올랐다.

광양시는 '22회 광양전어축제'를 시작한 지난 25일 오후 망덕포구 일대에서 야간경관조명 점등 식을 열었다.

점등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전남도의원, 광양시의원, 광양전어축제와 망덕포구를 찾은 관광객 100여 명이 함께 했다. 광양시는 야간 조명 공사 경과보고를 하고 점등

었다. 배알도 섬 정원 야간 경관 조명 공사는 '망덕포

기념행사를 열어 방문객들과 함께 조명 구간을 걸

구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양시는 배알도 야간조명 조성을 시작으로 야 영장 설치,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별빛아일랜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1605개에 달하는 조명이 밝혀진 구간은 별해는

다리부터 배알도, 해맞이다리까지 이어진다.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7월 마무리했다.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점등식을 열었 다.



광양 배알도를 잇는 별헤는다리와 해맞이다리에 화려한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다. 광양시는 3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아간경관조명(일몰~밤 11시)을 운영한다. 〈광양시 제공〉

1605개의 조명을 매일 일몰에 맞춰 불을 밝힌 뒤 밤 11시까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배알도를 은은하게 물들인다.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된 배알도에서는 해 지는 장관을 구경하고 밤 시간대에는 화려한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망덕포구 무접섬광장 일대서 사흘간 열린 '22회 광양전어축제'는 5만명 인파가 몰려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인 배알도 야간 경관 조명 점등식이 시민과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심 속에서 거행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배알도 야간경관조명을 마중물로국내 최고 수준의 캠핑 중심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별빛아일랜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에 20세대 공영택지 조성 추진

구례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세대 소규모 공영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영택지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

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부지는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일대 2만

4530㎡이다. 구례군은 공용택지 20세대와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올해 4월 착공한 뒤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된다. 개별 주택 부지 면적

은 495~661㎡ (150~200평)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